

연세대·교육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출범 "대학도서관 역할·방향 모색"

2025년까지 매년 2억씩 투입 계획
보편적이고 열린 서비스 방안 마련

연세대와 교육부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를 공동으로 공식 출범하고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팔을 걷었다.

연세대와 교육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위당관 6층)에서 교육부 선정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 출범식은 정치계, 정부, 학계 등이 모여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연구소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혁신과 교육 및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구성원의 보편적 학술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응하는 대학도서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대학도서관 전문연구소 개소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 R&D의 핵심 기반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수, 연구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보편적 학술 정보 요구



연세대학교 입구 /연세대

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연구단에 매년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교육·연구 지원 방안 연구'라는 과제 하에, 대학 구성원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열린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출범식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장인 이지연 연세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김현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종화 연세대 교학부총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초등생 '운동선수' 중고생 '교사' 희망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종 증가추세

특정 직업을 선호하던 학생들의 희망직업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고, 중·고교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였다. 최근 10년 간 상위 희망직업 누계 비율은 지속 감소한 반면, 크리에이터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꼽은 학생들이 증가 추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지난 6월 18일~7월 26일 까지 1200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4만4078명을 대상으로 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0일 발

표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운동선수가 희망직업 1위를 차지했고 교사는 2위였다.

특히 지난해 3위였던 의사를 제치고 크리에이터가 3위에 올라섰다. 중·고등학생에서는 교사가 각각 희망직업 1위를 차지했고, 중학생은 의사, 경찰관 순으로, 고등학생은 경찰관, 간호사 순으로 선호했다.

대신 10년 전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 생명·자연과학자나 연구원, 중학생은 심리상담사·치료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고등학생은 화학공학자, 연주가·작곡가, 마케팅·홍보 관련 전문가가 20위권에 등장하는 등 희망직업이 다양화 됐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방사광이용자협회장에 김현정 서강대 교수

서강대학교는 자연과학부 물리학과 김현정 교수(사진)가 사단법인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제15회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년이다.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는 1989년 8월 발족된 공의법인 단체로, 방사광(放射光) 관련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방사광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며 회원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

16대 총장 권대봉 박사 임명

인천재능대학교가 제16대 총장으로 권대봉 박사(사진)를 임명했다. 학교법인 재능학원(이사장 재능그룹 박성훈 회장)은 권대봉 박사를 인천재능대 제16대 총장으로 임명하고, 2020년 1월 6일 오후 3시에 동교본관에서 취임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권대봉 총장은 산업계·학계·연구기관에서 두루 활동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로, 인천재능대를 인공지능 선도대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수험생 '하향'보다 '적정·상향'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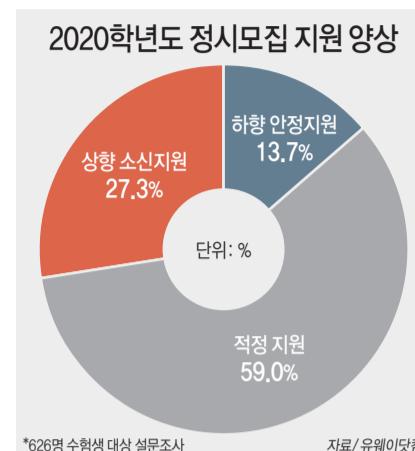
유웨이닷컴 온라인 설문조사

정시비중 상향 정책에 분위기 급변
소신지원 하향지원의 두배 이상
지원학과 선택, 취업률 우선 고려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은 하향 지원보다 적정이나 상향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수능 범위가 바뀌는 상황이라 하향 지원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정부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상향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향 소신 지원쪽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대학입시사이트 유웨이닷컴이 자사 회원 626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0 정시 지원 계획'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지원' 59.0%, '상향 소신 지원' 27.3%, '하향 안정 지원' 13.7% 순으로 답해, 소신 지원이 하향 지원보다 2배가 많았다.

이는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이 시행됨에도 정부의 정시 수능 전형 확대 방침과 맞물려 수험생들은 재수(또는 N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재수 혹은 N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나 내년 정시 정원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도 응답자 6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로 2021학년도 입시에는 학령 인구의 감소, 정시 수능전형 모집인원의 확대, 의학계열 선발 인원의 확대, 자연계열 수학 가형 범위 축소 등의 재수 기대 요인이 있다.

본인이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도적인 판단' 46.7% ▲'가족들과의 협의' 27.7% ▲'담임교사 혹은 공교육 선생님들과의 상담' 14.3% ▲'사교육 컨설팅 턴트와의 상담' 11.3% 순으로 나타났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다. 수험생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부모들과는 달리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원 대학(학과)을 선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취업률을 포함한 전공학과의 전망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전공학과의 전망(취업률 포함)'이 54.0%로 제일 많았고 ▲'대학교의 평판도(간판)' 36.7% ▲'통학거리 및 기숙사' 6.0% ▲'등록금 및 장학금 규모' 3.3% 순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에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자료를 묻는 질문에는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라는 답변이 40.0%로 제일 높았다. 이는 각 대학들이 정확한 입시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당위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수능 범위가 바뀌는 전년도는 일반적으로 '하향 안정 지원' 의사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수능 범위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시 모집 확대 방침에 '상향 소신 지원' 의사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경상대-경남과기대, 한솥밥 먹는다… 대학통합 공식화

11월 대내외 구성원 대상 의견조사 연석회의 개최, 최종 심의·의결

오는 2021년 3월 통합 대학 첫 신입생 모집을 추진하는 경남 진주 경상대 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대학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10일 오후 경상대 GNU컨벤션센터 4층 중세미나실에서 양 대학 '통합공동기획위원회' 및 '통합공동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학통합을 심의·의결하고 통합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지난 10월에 마련한 '대

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안)'과 통합 여부에 대해 11월 4~8일 실시한 양 대학의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통

합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어 협약을 체결해 대내외적으로 대학통합을 알리고 공식화하기 위해 열렸다.

연석회의에는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장(양 대학 총장)과 추진위원, 통합공동기획위원장(양 대학 부총장)과 기획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지난 6월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동추진위원회 산하 공동실무위원회에서 비전·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분야, 행정·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안)'은 공동기획위원회를 거쳐 10월 7일에 공동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각 대학별로 11월에 대내외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의견조사 결과, 대학통합 찬성은 경상대는 62.4%, 경남과기대는 63.7%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각 대학별 의사결정체제의 심의를 거쳐 통합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손현경 기자

세종대, 전액 장학금에 석·박사 국비지원… 국방시스템 공학과 모집

지식·역량 갖춘 군사과학전문가 양성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가 2020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유망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재학 중 전액 장학금에 해군장교 임관과 석박사 국비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에 따라 수험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세종대에 따르면,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첨단화되는 국방운용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역량을 갖춘 군사과학기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목표다.

무기체계의 공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군사과학기술 분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출범 모습

/세종대학교

교과목이 편성되고, 국방정책과 전략 교육과정을 통해 군 핵심간부 교육을 받는다.

특히 해군함정/항공기/잠수함이나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된 제어공학, 신호처리, 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통신 및 전파공학 등 전자 및 정보통신공학 분야, 역학과 로봇공학 등 기계공학 분야 교과목이 중점 개설된다.

해군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4년 간 해군으로부터 전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해군장교 임관 후 의무기간 복무 후 전역하면 각종 첨단무기체계 생산 관련 산업체나 연구소 취업도 가능하다.

세종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7일~31일 오후 5시까지다. /한용수 기자 hys@